

[論 文]

日本의 遺蹟과 遺物에 보이는 韓國文化의 影響

李 浩 官
(文化財管理局)

<目 次>

I. 序 言	① 銅鐸
II. 古代韓國文化傳來에 따른 遺蹟址	② 銅鏡
1) 韓國과 關係되는 日本内の 寺院과 神社	2) 原三國 및 三國時代古墳出土遺物
2) 日本九州熊本縣의 船山古墳出土品	① 冠·冠帽
3) 日本書紀와 倭名類聚抄	② 大刀
4) 日本平安時代に 撰錄된 「新撰姓氏錄」	③ 투구와 갑옷(甲冑)
5) 日本國內의 韓國式 山城	④ 鞍輪
6) 渡來人	⑤ 馬冑
III. 出土遺物	⑥ 須惠器(硬質土器)
1) 靑銅器時代	IV. 結 言

I. 序 言

古代 韓日關係史에 있어서 韓國文化의 影響에 의하여 日本古代國家의 形成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또 그렇게 보아왔던 것이 一般的인 개념으로의 현실이었다.

예컨대 佛敎의 전수에 따른 가람의 배치와 벽화 그리고 佛像의 造像등 그 以外에 近世에 와서는 도자기의 제작기술과 보급도 한국에서 진래 전수 된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 있으며 近來에는 日本속의 韓國탐방이란 주제하에 많은 관광객들이 渡日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현장확인조사와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학문적 조사를 병행하며 직접발굴조사를 행하지 못하였던것도 사실인 것이며 또한 韓日間의 古代 관련된 技術이나 技法 그리고 遺蹟址 等에 대한 연구를 심층있게 調査하여 確實한 結論을 얻지 못한것도 한例의 실정인 것이다.

특히 日本의 傳統文化속에는 先史時代부터 德川時代に 이르기 까지 韓半島의 文化가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쳐서 文化 발전에 지대한 영향과 공헌을 한 것도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이 文化傳來와 영향에 대한 것을 객관적인 연구論著 보다는 주관적인 주장으로 발표되어 왔을 뿐 그들이 인지하고 수증하는 論文이나 著書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으며 또한 구체적인 유적 유물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여 논리적인 확실한 증명을 행한 것도 없다. 다만 在日 한국인 학자 몇몇에 의하여 「日本속의 韓國文化」란 연구가 있어 현지 답사와 그들의 日本書紀 등 관계 文獻 등에서 보이는 기록 등을 발췌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대부분 우리들의 입장일 뿐 일본 국민이나 일본 학자들에 의해 수증되거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近來에 이르러서는 일본인 학자들이나 일본 국민 자체가 日本文化의 뿌리를 찾기 위해 연구와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서 日本의 傳統文化의 根源을 韓國의 古代文化의 遺蹟에서 찾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일본 민족이 갖고 있는 편협된 사고 방식에서 추론적으로 연구 발표에 임하고 있을 뿐, 보다 솔직한 文化 전래 과정과 역사적인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필자 자신도 일본 국내에 산재한 韓國의 古代遺蹟 遺物과 현지 발굴 조사 및 답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입장에서 韓日古代文化 관계에 대한 논고를 전개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나 在日 한국인 학자들과 일본의 유수한 학자들이 발표한 몇 가지 論著를 근거하여 古代韓日 관계의 文化遺蹟과 유물에 대하여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所見을 전개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古代 韓國文化傳來에 따른 遺蹟址

近者에 이르러 日本人 學者들에 의하여 古代 韓日文化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書籍이 發刊發表되고 있는바 대략 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百濟遺蹟의 源流, 九州考古學, 九州文化史와 美術, 日本佛敎美術의 源流, 日本속의 朝鮮文化, 韓國의 古代文化, 古代朝鮮文化와 日本, 新羅와 日本古代文化, 古代東아시아의 日本과 朝鮮, 古代 朝鮮, 日本金屬文化資料集成, 日本古墳文化資料, 日本과 朝鮮의 古代史, 古代日本과 朝鮮文化, 日本에 건넌 韓國文化, 古代의 日本과 朝鮮, 高句麗와 日本의 古代文化, 九州에 있어서 古墳文化와 朝鮮半島, 大宰府와 新羅, 百濟의 文化, 九州古代文化의 形成, 百濟文化와 飛鳥文化, 唐·新羅·日本(8세기의 일본과 동아시아), 倭人の 登場, 日本의 海賊, 靑銅의 武器(日本金屬文化의 여명), 渡來人, 실크로드 往來人名辭典 등 상당한 種類의 書籍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 이외에도 學會誌나 個人研究論文 등으로 발표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在日 史學者들로서 「日本속에 남아 있는 古代朝鮮」(段熙麟著), 「日本속의 朝鮮文化」(金達壽), 「九州와 韓人」(金正洙) 등은 주목할 만한 저서이며 1969年度부터 한 권으로 하여 雜誌 형식으로 발간되는 「日本속의 朝鮮文化」란 冊子는 日本의 저명 학자나 人士들과 대담 형식으로 韓國文化의 유적지와 그 발자취를 증명하고 또 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여러 書籍中에서 齋藤忠의 「古代朝鮮文化와 日本」에서 지적하고 論한 유적과 유물

에 대하여 살펴보면

1) 韓國과 관계되는 日本内の 寺院과 神社

· 畿内

山城地方에 6個所, 大和地方에 8個所

河内地方에 6個所, 和泉地方에 4個所

攝津地方에 5個所,

· 東海道

伊賀地方에 4個所, 伊勢地方에 8個所

尾張地方에 2個所, 遠江地方에 4個所

伊豆地方에 4個所, 武藏地方에 6個所

常陸地方에 1個所,

· 東山道

近江地方에 10個所, 美濃地方에 4個所

飛驒地方에 1個所, 信濃地方에 1個所

· 北陸道

若狹地方에 1個所, 越前地方에 8個所

加賀地方에 1個所, 能登地方에 8個所

越後地方에 2個所,

· 山陰道

丹波地方에 5個所, 丹後地方에 1個所

但馬地方에 3個所, 因幡地方에 8個所

出雲地方에 11個所, 隱岐地方에 2個所

· 山陽道

播磨地方에 2個所,

· 南海道

紀伊地方에 1個所, 阿波地方에 3個所, 伊予地方에 1個所

· 西海道

筑前地方에 1個所, 豊前地方에 1個所

肥前地方에 1個所, 肥後地方에 1個所

大隅地方에 1個所, 對馬島地方에 2個所

都合 132個所에 달한다고 하며 이 132個所는 地域의 分布狀況으로 볼 때 日本列島の 中間部分부터 西쪽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日本九州熊本縣의 船山古墳出土品을 비롯한 各地에서 出土된 金屬遺物中 韓國과 관계되는

것을 보면

① 裝身具

冠

群馬縣伊勢崎市大字今 古城古墳

群馬縣佐波郡玉村町大字山玉二子山古墳

茨城縣行方郡玉造町大字沖州 三昧塚

② 垂飾付耳飾

長野縣飯田市大字睦地 1號墳

千葉縣木更津市祇園 鶴卷古墳

茨城縣行方郡玉造町大字沖州 三昧塚

③ 帶金具

長野縣須坂市大字上八町 鎧塚

埼玉縣行田市埼玉 稻荷山古墳

④ 腰佩具

千葉縣木更津市元新地 元新地古墳

福島縣相馬郡鹿島町大字寺内眞野古墳

⑤ 鏡

群馬縣高崎市 觀音山古塚

群馬縣伊勢崎市 惠下古墳

이들에서 발견된 銅鏡은 百濟武寧王陵과 韓國의 여러 古墳에서 출토된 銅鏡들과 同型的 鏡이라고 한다.

⑥ 文樣과 彫飾

四神圖 東京都狛江市 龜塚古墳

四神像付須惠器

群馬縣勢多郡前橋市前二子古墳

動物文樣 千葉縣木更津市 祇園古墳

등이라고 하며 특히 群馬縣古城古墳에서 出土된 冠帽는 新羅의인 要素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표명하고 있다.

3) 日本書紀와 倭名類聚抄에서 보이는 韓國人과의 관계되는 地域이나 地名에 對하여 記述한것을 보면

道	國	郡	人	年號	年	收錄文獻	西記	韓 國
東海道	駿河國	(郡郷未詳)	高麗人	靈 龜	二・五	續日本紀	716	渤海 大祚榮 18
	甲斐國	(郡郷未詳)	高麗人	〃	〃	〃	〃	
	相模國	鎌倉郡 (郡郷未詳)	〃	〃	〃	〃	〃	
	武藏國	〃	新羅 131人	天平寶字	四・四	〃	760	新羅 景德王 19
		〃	新羅僧・百姓男女 22人	持統天皇	元・四	〃	687	〃 神文王 7
		〃	韓奈未許滿等 12人	〃	四・二	〃	690	
		〃	百濟尼・俗人男女 23人	天武天皇	一三・五	日本書紀	685	百濟 亡
		〃	新羅沙門 12人	〃	四・二	〃	676	新羅 文武王 16
	高麗郡	高麗人 1799人	高麗人 1799人	靈 龜	二・五	續日本紀	716	高句麗 亡
	〃	背奈公福信	背奈公福信	延 暦	八・十等	〃	789	
	〃	新羅僧	新羅僧	天平寶字	二・八	倭名類聚抄 續日本紀	758	新羅 景德王 17
	多摩郡					倭名類聚抄		
	狹江郡					〃		
	新座郡					〃		
	志木郷					〃		
	埼玉郡	新羅人德師 等 男女 53人	新羅人德師 等 男女 53人	天 平	五・六	續日本紀	733	新羅 聖德王 32
	上總國	(郡郷未詳)	高麗人	靈 龜	二・五	〃	716	高句麗 亡
	下總國	〃	〃	〃	〃	〃	〃	
	常陸國	〃	高麗人 56人	持統天皇	元・三	日本書紀	687	高句麗 亡
	陸奥國	柴田郡 新羅郷 白河郷	狹造智成	承 和	十・十一	續日本後紀	843	
東山道	近江國	(郡郷未詳)	韓緞治百嶋	養 老	六・三	續日本紀	722	渤海 武王 4
		〃	鬼室集斯等 男女700余人	天智天皇	四・八	日本書紀	665	
	蒲生郡	百濟百姓 男女400余人	百濟百姓 男女400余人	〃	四・二	〃	〃	百濟 亡
	神前郡							
	信濃國	(郡郷未郷)	前部佐根人	延 暦	一八・一 二	日本後紀	799	
		〃	下部奈弓麻呂	〃	〃	〃	〃	
		〃	掛婁眞老 等	〃	〃	〃	〃	
		〃	前部黑麻呂	〃	〃	〃	〃	(築摩郡地方)
		〃	前部秋足 等	〃	〃	〃	〃	(埴科郡地方)
		〃	後部黑足 等	〃	〃	〃	〃	(更級郡地方)
	小眞郡	上部豊人 等	上部豊人 等	〃	〃	〃	〃	
	(郡郷未詳)	上部色布知	上部色布知	〃	〃	〃	〃	
	〃	下部文代 等	下部文代 等	〃	〃	〃	〃	
	〃	前部眞林呂	前部眞林呂	〃	〃	〃	〃	

		筑摩郡 (郡郷未詳)	後部牛養 等 前部綱麻呂	〃 〃	八・五 一六・三	續日本紀 〃 (東筑摩郡 安坂地 方)	789 797	
	上野國	多胡郡 多胡郡 辛科郷 那波郡 委文郷	新羅人子午足 等 193人	天平神護	二・五	續日本紀 倭名類聚抄 〃	766	新羅 惠恭王 2
	下野國	(郡郷未詳) (郡郷未詳) 寒川郡 眞木郷	新羅人 高麗人	持統天皇 靈 龜	元・三 四・八 二・五	日本書紀 續日本紀 倭名類聚抄	687 690 716	新羅 神文王 7 新羅 神文王10 渤海 大祚榮 18
山陰道	丹波國	(郡郷未詳) 向鹿郡 後部郷	韓鍛冶首法麻呂	養 老	六・三	續日本紀 倭名類聚抄	722	
	但馬國	氣多郡 勝部郷						
	出雲國	出雲郡 漆沼郷 神門郡 日置郷	辛人部近女 勝部羊	天 平 〃	一一 〃	大日本古文書 〃	739 〃	
山陽道	播磨國	(郡郷未詳) 飾磨郡 辛室郷 飾磨郡 草上村 宍粟郡 狹野郷	韓鍛冶百依 韓人山村 等	養 老	六・三	續日本紀 播磨國風土記 〃 倭名類聚抄	722	
	周防國	余色郡 神前郷	辛人邑與會	天平勝寶	九・四	大日本古文書	757	
南海道	紀伊國 讚岐國	(郡郷未詳) 寒川郡	韓鍛冶杭田 韓鍛冶田比登毛人 等 鈿	養 老 神護景雲	六・三 二	續日本紀 〃	722 768	
西海道	筑前國	志麻郡 韓良郷 宗像郡 辛家郷				倭名類聚抄 〃		
	豊前國	宇佐郡 辛嶋郷				〃		
	日向國	兒湯郡 韓家郷				〃		

4) 日本의 平安時代에 撰錄된 「新撰姓氏錄」에 記錄되어 있는 古代關係의 姓氏와 이들이 分布되어 있던 地域을 보면 아래와 같다.

高句麗系人

左京 福堂造 河內民首·後部藥師主·王·高

右京 長背連 難波連·嶋岐史·嶋史·狛首·高田首·日置造·高安·下村主·後部王

山城 黃文連 桑原史·高井造·狛造·八坂造

大和 日置造 鳥井宿禰·榮井宿禰·吉井宿禰·日置倉人

攝津 桑原史 日置造·高安漢人

河內 大狛連 嶋本

(未定雜姓)

左京 後部高

右京 朝明史 後部高

大和 鉦師公

河內 狛染部 狛人

和泉 神人

百濟系人

左京 和朝臣·百濟朝臣·百濟公·調連·林連·高槻連·香山連·廣田連·石野連·神前連·沙田史·大丘連·小高使臣·飛鳥部

右京 百濟王·菅野朝臣·葛井宿禰·宮野朝臣·津朝臣·中朝臣·禰連·三吉宿禰·鴈高宿禰·安勒連·城條連·市住古·岡連·百濟伎·廣津連·春野連·面氏·己汶氏·汶斯氏·大縣氏·道祖史·大原史·苑部首·民首·高野造·飛鳥部造·御池造·中野造·眞野造·枋谷造·坂田村主·上勝·不破勝·利部·漢人(百濟國人多夜加之後也)·賈氏·半比氏·大石崎立·林立·大石林

山城 民首·伊部造·未便臣·木日佐·勝·岡屋公

大和 縵連·和連·宇奴首·波多造·薦口造·園人首

攝津 船連·光井連·林史·爲奈部首·牟古首·原首·三野造·村主·勝

河內 永海連·調日佐·河內連·佐良連·錦部連·依羅連·山河連·岡原連·林連·吳服造·宇弩造·飛鳥戶造·古市村主·上日佐

和泉 百濟公·六人部連·錦部連·信太首·取石造·葦屋村主·村主·衣縫

(未定雜姓)

左京 百濟氏·朝戶·足奈

右京 弓良公·堅祖氏·古氏·加羅氏·吳氏

山城 廣幡公

攝取津 大友史·船子首·新木首·豐村造·入俣部·長田使主·舍人

新羅系人

左京 橋守

右京 三宅連・豊原連・海原連

山城 眞城史

大和 系井造

攝津 三宅連

河内 伏丸

和泉 日根造

(未定雜姓)

河内 守弩連・竹原連・小橋造・环作造・大賀良・賀良姓

和泉 近義者・山田造

5) 日本國內의 韓國式山城

日本國內 散在되어 있는 韓國式山城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實例를 보면 日本의 山城의 最初는 神籠石式山城으로 나타났으나 本格的인 山城을 築城하기 시작한것은 百濟人들의 技術과 築城에 의하여 되었다고 기록에 나타난 것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는 對馬島의 金田城을 비롯하여 九州의 怡土城, 大宰府의 大野城, 그리고 基疑城, 鞠智城 등이 있고 四國에는 屋島城 本土에는 常城 茨城, 高安城 등이 있으며 傳說에 의하면 AD760年인 8세기 中엽에 日本의 天平寶子4年 正月에는 陸奥國의 桃生城, 出羽國의 雄勝城을 造城하였는데 그 공로자는 百濟朝臣 足人 百濟王 三忠 등의 이름이 보이며 또 韓袁哲이란 이름도 기록에 보인다고 하였다. 아울러 西日本의 山城築城과 東日本의 城柵築造에는 百濟人이 關係하였다고 기술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古代韓國의 築城기술과 高句麗 百濟 新羅人들이 부단히 渡日하여 日本古代文化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것은 사실인 것이다.

6) 『渡來人』이란 題目아래 발간된 좌담형식의 책자에서 참가자들은 공공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文化와 제도, 정치등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거명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여러 人名과 神 그리고 神社등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들을 대략 소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人名

曇徴-고구려에서 온 高僧으로 彩色과 紙墨의 제조법을 전하였다라고 함

段揚爾-AD513(繼體王7年)에 五經을 전하였고 이때 醫博士 易博士 曆博士등을 데리고 갔다고 日本書紀에 기록되어 있다.

東漢駒-蘇我馬子の 依賴에 의해 崇峻王(587~592)을 암살한 渡來人

船王俊-6C경 百濟에서 온 渡來人으로 推古王(592~628) 舒明王(629~641)朝때 봉사하였으

며 大陂府柏原市出土의 船王後首墓碑銘으로 有名

味摩之-7세기 前半 百濟에서 온 樂人으로 日本의 伎樂舞를 傳達하였다 한다.

陶部高貴-5세기 後半 百濟에서 온 사람으로 日本의 硬質土器인 須惠器제작기술을 전했다고 하며 陶部라는 工人集團의 首長이라고 한다.

觀勒-推古王朝때 渡來한 百濟僧으로 天文地理와 遁甲方術등 書籍을 전하였다고 한다.

葛城氏-日本古代 大和의 大豪族으로 「カツラギ」는 韓津城(カラツキ)의 前언이라 한다.

鬼室集斯-日本書紀에 의하면 近江浦生郡에 살았다는 渡來人 學者이며 현재 滋賀縣日野市에 鬼室神社가 있다.

良弁-奈良東大寺初代別堂 百濟人

船民-應神王(270~310)때 百濟에서 渡來한 辰孫王의 子孫이라고 하며 日本國最古의 墓誌가 大陂府柏原市松岳山古墳에 있다.

河內直-「新撰姓氏錄」에는 「百濟國都慕王의 아들로 陰太貴首王에 의해 축출로」되어 있고 河內國一帶의 豪族

蘇我氏-孝元王(BC214~158)의 子孫이라고 하나 不明하고 系譜에 따르면 滿智韓子 高麗라는 이름에 의해 韓半島에서 渡來한 사람으로 사료된다.

司馬達等-6세기 후반 百濟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鞍作止利의 祖父가 된다.

阿知使主-5세기 前半 百濟에서 건너온 사람으로 東漢氏의 祖上이라 한다.

管野眞道-「續日本紀」의 편집에 관여한 유식한 정치가로 百濟계 사람

高野新笠-桓武王(781~806)의 生母이며 百濟계 和氏出身이고 AD789년에 死亡

藤貞幹-德川幕府의 江戸時代 선구적으로 「日本속의 朝鮮文化論」을 저술한 人物로 1732~1797까지 生存

秦河勝-신라계 사람중 대표적인물로 飛鳥時代에 山城지방을 中心하여 세력을 확장시켰으며 또한 군사력도 증가시킨 인물

高麗人-「甲斐」「相模」「上總」「下總」「常陸」「下野」의 高麗人1799名을 이끌고 武藏國으로 이진하여 高麗郡을 설치하였다 (續日本紀AD716年) 는 기록이 있다.

鞍作止利-止利佛師라고도 불리우며 渡來한 鞍部司馬達等의 孫이라고 하며 飛鳥寺의 丈六佛등을 제작한 사람.

橘大郎女-聖德太子の 愛妃로서 신라系 秦氏族出身이며 유명한 天壽國曼荼羅繡帳을 만들게 하였다.

僧旻-本來의 姓은 新漢人旻이며 百濟系 사람의 子孫으로 隋에 건너간 후 大化改新으로 國博士가 되었다.

南淵請安-本來의 姓은 南淵漢人請安으로 渡來人이며 中大兄皇子, 中臣鎌足등의 新政府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人物

高向玄理-本來의 姓은 高向漢人玄理로 渡來人의 子孫이며 AD608년에 小野妹子와 같이 대륙

으로 건너갔다 歸國後 大化改新에 功績을 크게 쌓은 人物

② 神

大國主命－須佐之男命의 아들이라고 하며 別名으로 大穴牟遲命大己貴神이라고도 한다. 韓半島에서 건너온 神이다.

天空神－「ハヌム」라고 읽으며 韓國에서는 至高의 神으로 모시며 이 神은 하늘에서 山頂을 타고 天降한다고 한다.

宇佐八幡－大神比義라는 渡來한 氏族의 道士가 勤請한 것으로 宇佐八幡은 韓國神이라고 한다.

素戔鳴尊－「辰韓은 秦의 亡人으로 素戔鳴尊은 辰韓의 主人이다」라고 藤貞韓은 해석하고 있다.

鳴武大明神－和歌山市의 東쪽 郊外の 鳴武社에는 百濟傳來의 酒造神을 모시는 名祠가 있다.

③ 神社

韓國伊太氏神社－島根縣(出雲國)各地에 있다.

中嶋神社－兵庫縣豊岡市에 있으며 菓子의 神으로서 田道間守을 제사 지내며 田道間守는 天日槍의 후예

韓國神社－兵庫縣城崎에 있다.

彌彥神社－新潟縣 神社부근에 신라왕의 墓가 있다고 함.

新羅神社－福井縣今庄町에 있으며 부근에 新羅山 新羅川등의 이름은 가진 地名山川이 있다 함.

敢國神社－伊賀의 豪族, 服部氏의 祖神廟라고도 한다.

隅田八幡宮－紀ノ川上流의 和歌山縣橋本市에 있으며 渡來人의 손에 의해 제작된 人物畫像鏡이 有名

日前神宮, 國縣神宮－和歌山市에 있으며 紀伊國造家에 의해 제사지냄

石上神宮－奈良縣天理市에 있으며 百濟王이 倭王에게 준 七支刀가 有名

大神神社－三輪山에 있으며 日本最古의 神社로 渡來人 大神氏의 祖上인 大田田根子を 모시는 神社.

飛鳥戶神社－百濟昆支王을 모시는 神社.

大津神社－大阪府羽曳野市에 있으며百濟에서 渡來한 氏族의 氏神을 모시는 神社.

高良神社－大阪府寢屋川市에 있으며 「コウラ」는 「高麗」라는 發音에서는 名稱

玉祖神社－大阪府八尾市에 있으며 別名은 高安明神이며 高安氏는 高句麗에서온 渡來人, 玉造部의 祖神을 모시며 神體는 韓國樣式

比賣許曾神社－大阪市生野區와 名地에 있으며 比賣許曾의 이야기는 韓民族 特有의 神話이다.

白國神社－兵庫縣姫路市에 있는 神社로 新羅國人(シラクニ)이 왕래한 곳에서 유래된 地名
白木神社－北九州에 있는 神社 白木(シラキ)은 新羅來(シラキ)에서 된 이름으로 「신라에서
온 여러사람이 살고 있던 곳」에서 유래

④ 寺刹

善光寺－長野市에 있으며 百濟王族의 本多善光이 이곳에 佛像을 안치하고 布敎하였다함.

鷄足寺－日本各地에 있으며 新羅系의 渡來人에 의해 창시되었다고 하며 신라의 鷄林에서 由
來되었다고 함.

世尊寺－奈良縣吉野에 있으며 本尊은 百濟의 太子에 의해 造像되었다함.

百濟寺－琵琶湖東쪽에 있으며 渡來人들의 氏族寺刹이며 사찰의 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은
廣隆寺의 사유상과 동형이다.

東大寺－大伽藍의 造營감독은 新羅系의 猪名部百世가 하였다고 함.

勝樂寺聖天院－埼玉縣高麗郡에 있으며 高句麗傳來의 佛敎靈場이며 高麗王若光의 墓가 多層
塔으로 殘存.

飛鳥寺－建立當時의 住持는 高句麗僧慧慈와 百濟僧 慧聰등 2人이었다함.

千葉寺－千葉縣에 있으며 韓半島에서 渡來한 氏族이 開創하였다고 하며 근처의 千葉神社 역
시 渡來氏族創建 이라고 함.

이상의 것 이외에 地名, 名稱, 遺蹟등에서 韓國과 관계되는 것 몇例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芦屋の濱－漢人濱(カラビトノハマ)라고 칭하며 渡來人의 渡來地이며 근처에는 朝鮮寺라 불
리는 寺刹이었다.

綾部－京都府의 綾部는 원래 漢部라고 하였으며 絹織物을 專業으로 하는 韓半島에서 온 渡來
人들의 마을이었다.

丹波胡麻의 里－胡麻는 高麗로서 丹波胡麻의 附近에는 渡來人에 의해 개발되었던 곳

白木(シラギ)－各地에 있는 地名으로 新羅에서 온 言語로 志木 白城등도 같은 뜻이다.

韓神山(カラガミサン)－三重縣 伊勢市에 있으며 伊勢神宮의 禰宜의 墓地로 되어 있다.

員弁郡(イナベクン)－三重縣, 원래는 猪名部郡이라 하였던 것으로 渡來人의 木工 猪名部氏가
移住한것에서 부터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함.

イカルガ－法隆寺가 있는 斑鳩가 有名한데 イカル가는 韓(カラ)=輕(カル)에서 온 말이라 한
다.

紀伊－紀伊國은 「木の國」이라 부르는데 豪族紀氏는 원래 百濟八大姓의 하나인 「木氏」라고 한
다.

大陂平野川－大陂生野區를 통과하여 흐르는 강으로 이부근에 韓半島出身者들이 特히 많이 居
住하고 있었으며 이전에는 百濟川이라 불렀다 한다.

武藏－韓國語의 「모시, 시」에서 온 말로서 모시=麻紵 시는 種子의 뜻이라 한다.

狛江(コマエ)－東京都의 地名으로 狛는 高句麗의 高麗(コマ)에서 온 말이며 狛犬(コマイヌ)도 원래는「高麗犬(コマイヌ)」이었다.

飯能(ハンノウ)－埼玉縣의 地名, 韓國語의 「한, 나라」에서 온 言語로 ハン=한은 「韓」나라=나라는 「國」을 의미하며, 語源은 韓國語에 있다.

飛鳥(アナガ)－ア는 接頭語, 스카는 古代韓國語로서 「住處」를 의미하며 그러므로 「聚落의 뜻」이 있다 한다.

太秦(ウズマサ)－京都의 地名, 山城(京都)은 秦氏의 本據地라 하며 太秦의 廣隆寺는 秦氏族의 氏寺이었다.

秦野(ハダノ)－神奈川縣의 地名, 新羅系의 秦氏族의 이름에서 온 것이며 秦野는 小京都라고도 한다.

賤機(シズハタ)山古墳－靜岡市에 있으며 被藏者는 명확하지 않으나 가까운곳에 麻機(アサバタ), 服織이라는 地名이 있는 것으로 보아 渡來人의 墓라고 한다.

唐古池－「日本書紀」에 「武内宿禰에 命하여……연못을 만들게 함……연못의 이름 붙이기를 韓人池라 칭함」이라고 하여 있다.

瀬田の唐橋－「三代格」에는 「韓橋」로 되어있어 渡來人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

神籠石－四角의 돌을 山腹에 가지런히 세워진 것으로 山頂을 둘러 쌓은 巨石遺蹟으로 韓國式山城과 공통점이 많다.

須玖(スク)遺蹟－福岡縣春日市 스크는 古代韓國語의 스크마=수구마, 村落의 뜻이 있다.

郡須國造碑－栃木縣郡須의 笠石神社에 있는 國寶로서 日本三古碑의 하나이고 碑文에는 「永昌」이란 年號을 사용하고 있어 渡來人이 만들었다고 한다.

板付遺蹟－福岡市, 彌生土器最古의 形態가 出土되었고 또한 마제석검, 석촉등은 韓半島에서 만들어져 전래된 것으로 보고 있다.

陶村(スエムラ)古窯址－5세기에 시작되는 須惠器의 窯蹟이며 現在 堺 和泉 狹山 岸和田의 各市野에 500여 이상 남아 있다.

多胡碑－郡馬縣吉井, 上野三碑의 하나이며 碑文에서 「羊」이라고 하는 有力한 渡來人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東大寺大佛－大佛造營에 百濟系渡來人의 子孫 行基

- 大佛鑄造의 總감독이 었던 百濟系 渡來人 國中公麻呂
- 大佛몸체에 鍍金할 金을 獻上한 것은 陸奧國司 百濟王敬福

將軍標－警界標, 마을의 道神 守護神, 埼玉縣의 高麗驛앞에 있다.

箱根木組工－箱根近處에 살고 있던 高麗人들이 남긴 기술이라 한다.

豊前國戶籍臺帳－大寶2年(AD702)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이 지역에는 85%가 渡來人氏族이었던것을 알 수 있다.

須惠器－韓半島에서 渡來한 것으로 「スエ」는 金屬 또는 「굳은」(硬質)이라는 뜻이 있으며 別

名은 新羅燒

鍛冶의 技術—忍海漢人麻呂와 韓鍛冶百依가 播磨國에 있었다(續日本紀). 兩者 모두 韓半島渡來人

和銅—武藏國秩父가 처음 발견한 것으로 年號로도 되었으나 발견한 것은 新羅에서 온 金上元(續日本紀)

踏鞴(タタラ)—還元法에 의해 砂鐵에서 부터 鐵塊를 만들어 내는 製鐵法의 技術者를 踏鞴(タタラ) 또는 韓鍛冶라고도 하고 있다.

伊賀織—高麗織 渡來技術

祇園祭—日本三大祭典의 하나로서 有名한데 高麗氏族들에 의해서 祖上, 先祖를 모시는 祭典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壬申의 亂—627년에 일어난 皇位繼承戰爭인바 이것은 大化改新以後의 百濟系와 新羅系의 勢力싸움이 있다고 보는 측도 있다한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에 의하면 寺院과 神社 古墳出土의 金屬遺物 그리고 地域地名, 姓氏, 韓國式山城, 人名, 神, 장승, 戶籍臺帳, 土器, 鍛冶技術, 織造와 織物, 祭典 等 어느것 하나 韓半島와 관계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日本地域에 分布傳來되고 있음을 볼 때 日本의 古代文化에 있어서 그 成立과정이나 發展과정이 古代韓國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그들 學者들 스스로가 認定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것이고 또 이에 대한 유적이나 유물이 남아있고 현재의 발달된 발굴작업에서 속속들이 出土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와같은 점으로 볼때 韓半島와 관계되는 유물은 대략 어떠한 것들이 있는 가를 살펴보아야 할 줄로 안다.

Ⅲ. 出土遺物

日本國內에서 出土되는 靑銅器時代부터 歷史時代 即 三國時代를 거쳐 統一新羅時代까지 관계된 다량의 遺物들중 韓國과 관계되는 몇가지 종류에 한하여 개관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1)靑銅器時代

청동기 유적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동검을 비롯하여 多鈕細文鏡, 粗文鏡, 銅鋒, 銅鉞, 銅鐸, 防牌形 銅器를 비롯한 儀器類와 銅鑿, 銅鈴具등이 出土되고 있다. 특히 이중 銅鐸은 魏志東夷傳의 韓傳의 기록에 의하면¹⁾ 懸樹하는 儀器에 사용되었던 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 三國志 魏志東夷傳 韓條

「……五月下種訖祭鬼神 群聚歌舞飲酒盡舞無休其數十人俱起相隨踏地低昂手足相應節奏有似鐸舞十月農功畢亦復如之信鬼神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名之天君又諸國各有別邑名之爲蘇塗立大木懸鈴鼓事鬼神諸亡逃至……」

① 銅鐸(圖 1)

이와같은 儀器類의 銅鐸이 日本國內에서 朝鮮式銅鐸이라는 名稱下에 出土된 것을 보면

大分縣宇佐市別府

福岡縣春日市大宇小倉字大南880-1

鳥取縣東伯郡東郷町北福字北山

岡山縣眞庭郡落合村大字下市瀬池尻

德島縣美馬郡脇町字江原

靜岡縣靜岡市有東第一遺蹟

靜岡縣駿東郡原町大字船津字陣ヶ澤

靜岡縣駿東郡原町大字東井出字開峯

靜岡縣沼津市原町

神奈川縣高佐郡海老名字本郷字本宿25號住居蹟

栃木縣小山市田間西裏958

등의 유적에서 出土되고 있는바 이 중에서 거의 完形의 형태를 갖춘 別府出土의 銅鏡은 大田 槐亭 洞出土의 銅鐸과 同一形임을 알수 있다.

日本の 銅鏡出土 遺蹟分布도 九州地方을 中心하여 西海岸의 鳥取縣, 四國의 德島縣 그리고 本州라 일컫는 本土의 靜岡, 岡山 神奈川 栃木縣등에서 分布出土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갖고 있음을 알수 있고 韓半島의 靑銅器文化와 밀접한 關係가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國內에서 靑銅器遺蹟으로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忠南扶餘松菊里遺蹟을 비롯하여

全南高興郡두원면 운대리 遺蹟

慶南義昌郡鎭東里遺蹟

大田槐亭洞遺蹟(1)

大田槐亭洞遺蹟(2)

慶南山淸郡丹城面白雲里遺蹟

全南和順郡도곡면大谷里遺蹟

慶南三千浦馬島洞遺蹟

慶南南海郡창선면당항리小草島遺蹟

慶南固城郡固城石芝里遺蹟

慶南金海禮安里遺蹟

慶南金海明法洞遺蹟

慶北永川出土遺物

慶北慶州市入室里遺蹟

慶北大邱直轄市晚村洞遺蹟

慶北慶州市竹東里遺蹟

慶北大邱直轄市新川洞遺蹟

慶北慶州市朝陽洞遺蹟

慶南義昌郡茶戶里遺蹟 등이며 이중에서 銅鐸, 馬鐸이 出土된 遺蹟은 大田 槐亭洞遺蹟出土의 銅鐸을 위시하여 竹東里, 入室里, 新川洞, 朝陽洞, 茶戶里, 慶州市坪里等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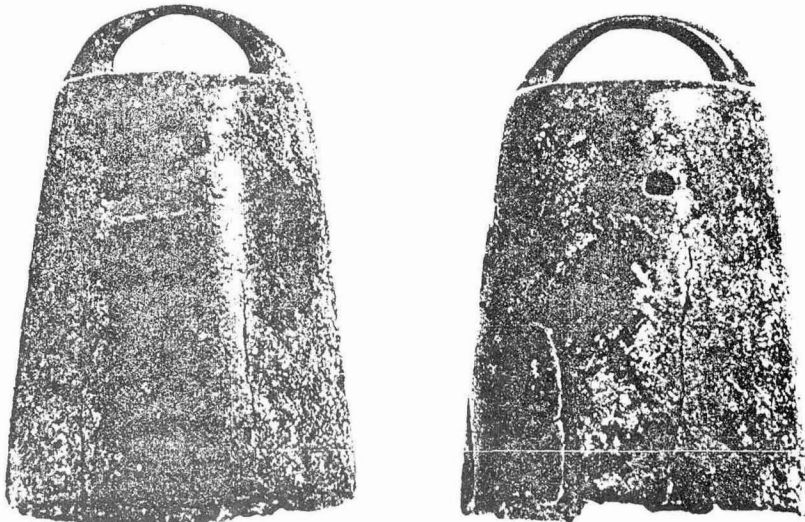
北韓地域에서의 靑銅器遺蹟은 北韓에서 발표한 論文等を 근거로 하여 살펴보면 平壤市서성구역 와산동유적을 비롯하여 64件에 이르고 있고 이를 지역별로 보면 평양시 3件, 개성시 2件, 함흥시 7件, 평남 2件, 평북 5件, 慈江道 2件, 咸南8件, 咸北4件, 黃海北道 7件, 黃海南道13件, 江原道2件, 中國東北地方(압록강, 두만강 연안)9件 共 64件이라고 한다.

이렇게 많은 靑銅器유적에서 정확치는 않으나 지금까지 밝혀진 銅鐸, 馬鐸이 出土된 유적은 平南大同江面石岩里9號墳 出土의 銅鐸을 비롯하여 大同江面土城附近出土品 大同江面出土品등 몇 종류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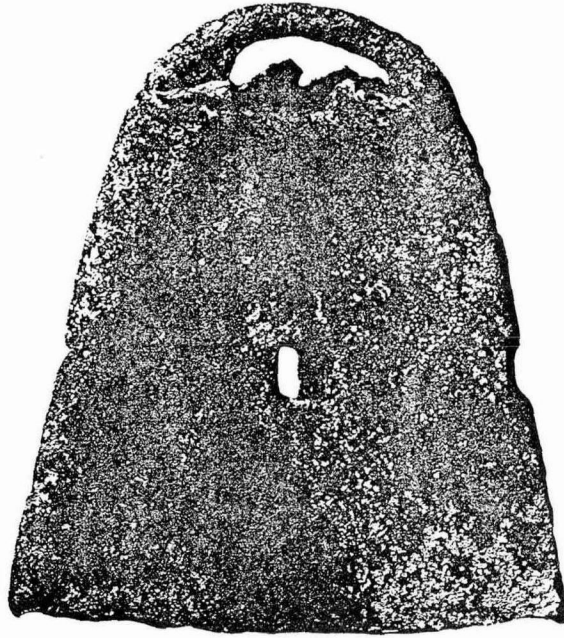
이상으로 볼 때 南北韓間의 靑銅器遺蹟에서 出土되는 銅鐸과 日本國內에서 出土되는 朝鮮式銅鐸과의 관계와 靑銅器文化전파에 대한 경로등을 앞으로 더욱 깊이 比較窺明하여야 될 것으로 본다.

② 銅鏡(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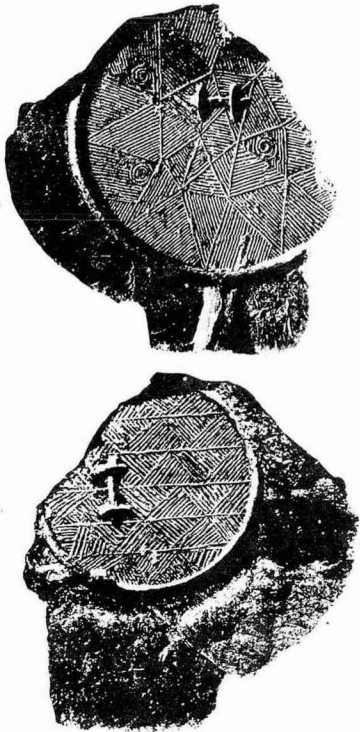
靑銅製遺物과 出土되는 銅鏡에 있어서도 福岡縣吉武高木遺蹟出土의 多鈕細文鏡은 日本의 編年상 彌生時代中期에 속하는 것으로 平安南道孟山出土의 銅鏡, 忠南道 禮山 東西里出土 多鈕細文鏡 江原道 橫城安興 講林里出土의 多鈕細文鏡등과 같이 多鈕를 구비하고 幾何文을 장식한 銅鏡으로 呪術的인 要素가 강한 韓半島에서 傳來된 銅鏡으로 추정하고 있는것도 주목된다.



〈圖1-1〉大田 槐亭洞出土銅鏡



〈圖1-2〉小銅鐸 彌生時代 大分・別府遺跡



〈圖2-1〉平安南道孟山出土 多鈕細文鏡



〈圖2-2〉福岡縣吉武高木遺蹟出土 多鈕細文鏡

(2) 原三國, 三國時代古墳出土遺物

原三國 및 三國時代古墳에서 出土되는 冠, 冠飾, 帶金具, 太刀, 甲冑 등에 對하여 간단히 개관 比較하여 보기로 하겠다.

① 冠, 冠帽(圖3, 圖4)

冠帽着用의 由來는 원래 머리카락의 흐트러짐 방지와 추위나 더위 등을 막기 위한 것에서 부터 비롯되어²⁾,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사회의 풍속과 계층의 위계를 구분하고 신분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관모의 첫사용에 대한 기록은 魏志東夷傳 高句麗條에 보이고 있다. 이 記錄에 의하면 大加主簿는 幘을 쓰고 小加는 弁形의 折風을 썼다고 되어 있어³⁾ 고유의 관모는 중국식의 幘이 아니라 시원형인 折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책이나 절풍에 새날개깃을 단 鳥羽冠을 사용하였던 것이 고구려 벽화의 인물화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에서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형식이 기본으로 되어 남부지역인 百濟, 伽倻, 新羅에 까지 영향을 주어 金冠, 銀冠, 金銅冠, 白華樹皮冠帽 등으로 발전 사용되었으며 또한 기능에 따라 外冠이라고 하는 冠과 內冠이라고 하는 冠帽로 나누어 지게 되고 이들 外內冠등에 장식하는 冠裝飾을 하게 되어 外冠 內冠 冠裝飾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高句麗, 百濟, 新羅, 伽倻의 관모와 관을 비교하여 본다면 각기 특징을 갖고 있는바 高句麗時代의 冠帽로 지금까지 알려진것은 平壤부근古墳에서 出土된 金銅透刻草花文의 아취형의 冠帽와 淸岩里土城에서 발견된 金銅透刻火焰唐草文장식의 金銅冠2個의 類型뿐이고 百濟의 冠, 冠帽는 武寧王陵에서 出土된 王, 王妃冠의 透刻金製草花文冠飾과 羅州潘南面新村里第9號墳出土의 金銅冠과 고갈형의 內冠이 있고 1986年10月15日 全北益山郡熊浦面笠店里出土의 金銅製로된 고갈형 冠帽가 있다.

新羅의 冠과 冠帽는 三國中 가장 독특한 양식을 가추고 있는바 冠帶위에 3個의 鬣 가지 장식과 2個의 鹿角形式을 가추고 있는것이 특징이며 內冠에 이르러서는 高句麗의 折風과 유사한 고갈형의 內冠과 鳥翼形의 장식을 가추고 있는 것 등이 독특하고 外冠에는 수 많은 瑩락과 曲玉등을 장식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冠帶에는 太環耳飾類를 수식으로 장식하고 있는것이 高句麗나 百濟 伽倻와도 다르다 할 수 있는 특이한 점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기본형외에 가장 고식의 형태를 가춘 校洞出土 金冠과 같은 유형도 있다.

현재까지 신라금관 및 銀冠出土 例을 보면

校洞出土 金冠

金冠塚出土 金冠

金鈴塚出土 金冠

2) 「韓國의 冠帽」 嶺南大學校 新羅伽倻文化研究所刊 p.2 韓國의 冠帽始原樣式 1972, 6. 30.

3) 三國志 魏志東夷傳 高句麗條

「大加主簿頭著幘如幘而無後其小加着折風形如幘」

瑞鳳塚出土金冠

天馬塚出土 金冠

皇南大塚出土 金冠

皇南大塚南墳出土 銀冠

義城塔里出土 冠 등이 있다.

伽倻의 冠으로서 高靈古墳에서 出土된 金冠(湖岩美術館藏), 高靈池山洞32號古墳出土金銅冠(啓明大博物館藏), 梁山夫婦塚出土 金銅冠帽, 大邱內唐洞55號出土金銅冠帽, 東萊福泉洞第1號墳 出土金銅冠, 大邱飛山洞出土 金銅冠 등이 있다.

이밖에도 여러개의 金銅冠이 出土되었으나 冠片이나 일부분이 훼손되어 原形을 알수 없는 실정이며 다만 삼국및 가야의 관모는 그 양식과 재료등에 있어 매우 유사한 양식을 띠우고 있는바 특히 신라의 冠帽나 冠에서 보이는 맞가지 형태의 장식과 사슴뿔 장식등은 三國中 독특한 장식법이며 이러한 장식양식은 黑海地方, 시베리아 일대에 널리 分布되고 있던 유러시아 유목민족등의 그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 신라의 文化가 북방계 요소를 갖고 있는 뚜렷한 증거가 되고 있다.

이같은 신라의 특징적인 관은 가야의 지배하에 있던 낙동강 동편지역인 대구와 창녕지역에서 출토되는 金冠및金銅冠에서도 보이고 있으나 낙동강 서편의 고령 성주등에서는 신라의 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관들이 出土되고 있어 가야시대 관의 특성을 잘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가야지역에서 출토되는 관은 호암미술관소장의 傳高靈出土金冠 1点外에는 全部 金銅冠으로서 신라의 冠이 대부분 金製로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상에서 살펴본 韓國의 冠, 冠帽中 日本國內에서 出土된 金銅冠中 신라의 金製冠과 유사한 것이 있는바 그것은 郡馬縣山王二子山古墳出土의 金銅製와 百濟地域인 全北益山郡熊浦面笠店里出土金銅製冠과 熊本縣江田船山古墳出土金銅製冠帽의 형태와 樣式이 거의 同類임을 알 수 있다.

日本國內에서 冠 出土遺蹟을 살펴보면

熊本 江田船山古墳 透彫冠帽

佐賀 潮見古墳 島田塚古墳

福岡 飯冠塚古墳

愛媛 東宮山古墳

香川 王墓山古墳 冠帽

島根 築山古墳

鳥取 長者が平古墳

兵庫

タイ山1號墳

西宮山古墳

西山6號墳

奈良

藤ノ木古墳 半圓筒形金具

大谷今池2號墳

京都 物集女車塚古墳

三重

井田川茶臼山古墳

西野5號墳

滋賀 山津照神社古墳

鴨稻荷山古墳 半圓筒形金具

福井

十善, 森古墳 透彫冠帽

二本松山古墳

静岡

賤機山古墳

長野 櫻ヶ丘古墳

群馬

山王二子山古墳

古城古墳 魚形步搖

栃木 桑57號墳

千葉 姉崎山王山古墳

茨城 三昧塚古墳

佐賀 關行丸古墳 半圓筒形金具

福岡 宮地嶽古墳 透彫冠

島根 植田鷺の宮病院內横穴古墳 立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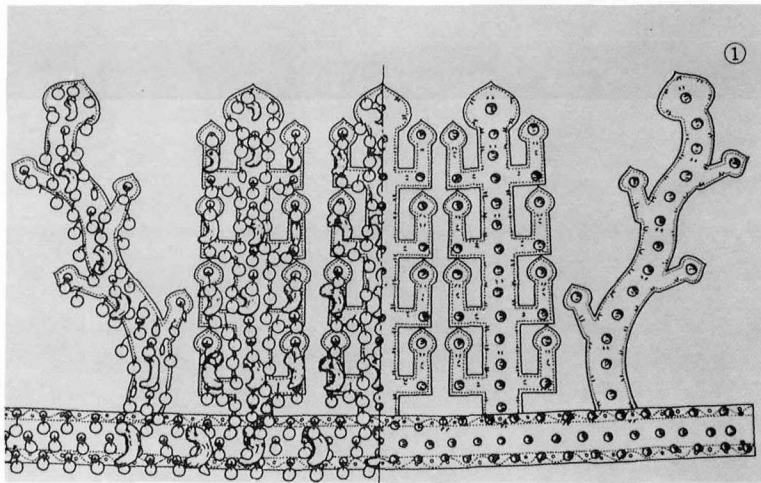
奈良 新澤千塚126號墳 方形透彫冠飾

静岡 スズノゴシヨ古墳 冠帽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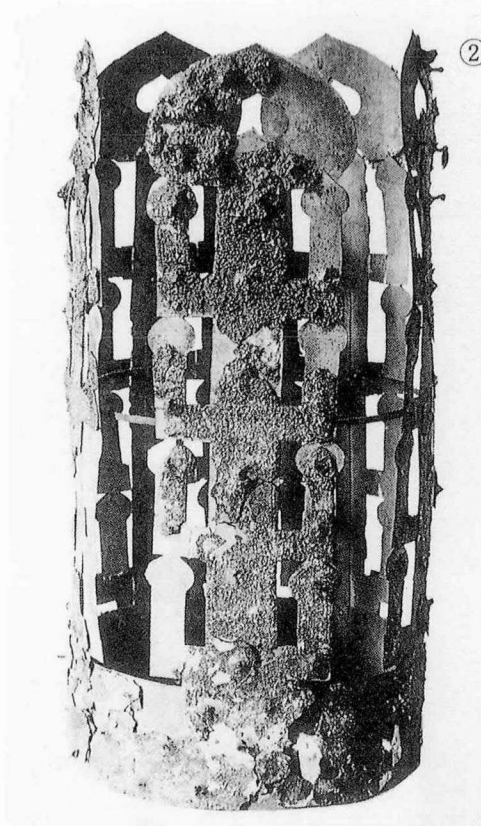
福島 上の山金冠塚古墳 立飾

등 33個所 古墳이 있는바 이중 江田船山古墳出土 金銅製冠(5세기末~6세기초,高 20.9m)과 山王二子山古墳出土金銅製冠(6세기~7세기초高37.8m)의 2個 金銅製冠은 유난히도 韓半島에서 出土되는 新羅 金製冠등과 百濟地域에서 出土된 笠店里的 金銅製冠과 유사한점이 많음을 앞에서도 언

금한것 같이 알 수 있다. 또한 金銅製飾履도 同形の 類型이다.(圖 6)



(圖 3) ① 天馬塚出土金製冠(高32.5m. 신라 5~6C)



(圖 4) ② 群馬縣山王二子古墳出土金銅製冠
(高27.3m. 6~7C)

天馬塚出土의 金冠은 材料가 金이며 그 형태는 臺輪을 갖추고 上下의 周緣部에 波狀点列文을 돌렸으며 臺輪의 前面 3곳에는 山字形 맞가지 立飾을 세우고 그 뒷쪽 左右 두 곳에 鹿角形 立飾을 세웠는데 이 立飾은 基部의 雙孔에 金製못을 박아 臺輪에 고착시켰다.

특히 山字形 맞가지 立飾은 가지가 4단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各 立飾의 周緣에는 2條의 点列文을 打出하였으며 臺輪과 立飾 全面에는 圓형 영락과 비취 曲玉을 金絲로 꿰어 달았는데 曲玉은 위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져 金冠 전체가 안정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金冠의 아래에는 大小 두가닥의 垂飾이 달린 細環垂飾 한쌍이 달려있다.

그러나 山王二子山出土 金銅製冠은 材料가 金箔을 입힌 銅製로 強度가 견고하여 垂直으로 山子形 맞가지 立飾이서 있을 수있고 또한 가지도 天馬塚의 山字形 立飾과 동일하게 4단으로 되어 있다. 臺輪과 立飾全面에 역시 金銅製絲로 원형 영락을 꿰어 달은것도 동일한 수법이며 立飾의 數에 있어서는 天馬塚의 金冠은 3곳에 불과하나, 이 金銅製冠은 臺輪 전체에 5개의 立飾을 세워 冠 전체를 장식하고 있는것이 특징이며 鹿角形立飾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天馬塚金冠에 있어서는 臺輪과 立飾周緣에는 点列文이 打出되어 있으나 이 金銅製冠에서는 点列文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金銅製冠의 臺輪과 立飾이 厚肉한 銅製板인 관계로 섬세한 技法을 구사치 못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全體的인 外觀相으로는 신라系的 冠形式을 그대로 영향받아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時代역시 신라의 天馬塚을 비롯한 金冠보다 1~2C 가량 後代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신라문화의 영향이 미쳤던 유물이 아닌가 한다.

江田船山古墳出土의 裝飾具類는 5C末 韓半島에서 제작 전해진 遺物들로 보이고 있으며 특히 金銅製冠帽(5C末~6C초)에 있어서는 龍과 飛雲文을 透彫로 장식한 文樣手法은 高句麗系統의 文樣手法과도 類似하나 冠帽形態는 百濟製品으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한 冠帽形態는 全北 益山郡熊浦面笠店里出土 金銅製冠帽와 全南 羅州郡潘南面新村里9號墳出土 冠帽形態와는 外形상 동일 하나 文樣장식에 있어서 船山古墳出土冠帽는 透刻文樣이나 新村里出土冠帽는 草花文을 占列로 장식하였고 笠店里出土 冠帽는 魚鱗文으로 장식하고 있다. 특히 관모 뒷편에 달린 장식은 船山古墳出土의 것과 笠店里出土의 것과는 동일한것이 특징이다.

日本의 경우 船山古墳出土 冠帽(圖5)에 대하여 梅原末治가 주장한대로라면⁴⁾ 6C경에와서 축조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매장 主體部인 석관이 板石으로 되어 있는 점이며 百濟에서의 板石을 이용한 石棺은 末期인 6C이후에 유행하였던 점으로 볼때⁵⁾ 충분히 이 지역이 百濟系文化가 전래침투되어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4) 梅原末治『玉名郡江田村船山古墳調査報告書(下)』p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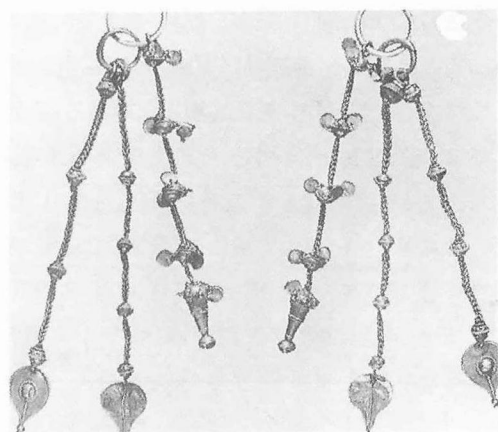
5) 『益山笠店里發掘報告書』p. 77 文化財研究所刊, 1989. 12.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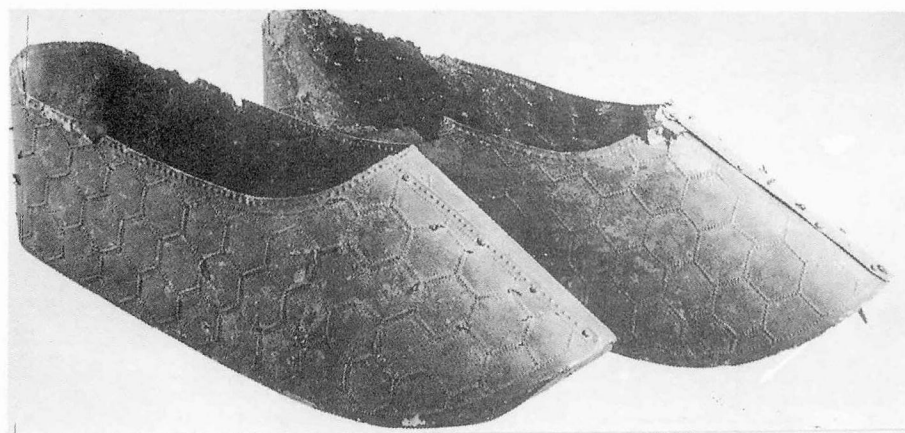
〈圖 5-1〉船山古墳出土冠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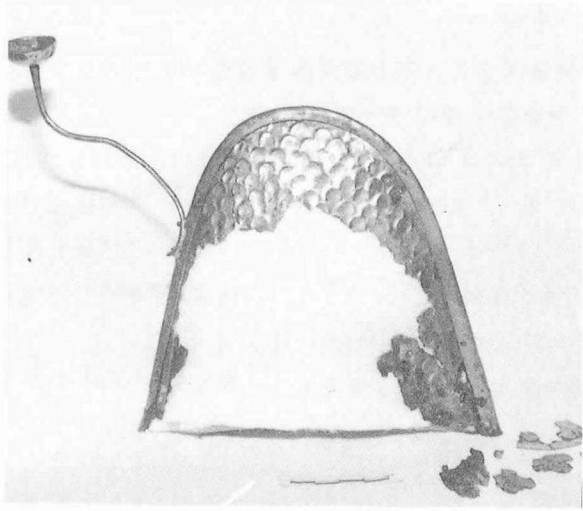
〈圖 5-2〉船山古墳出土耳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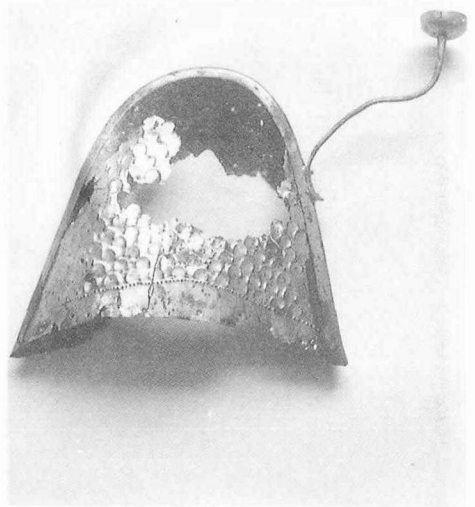
〈圖 5-3〉船山古墳出土耳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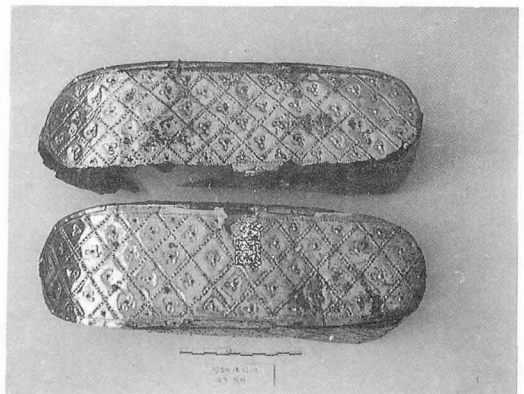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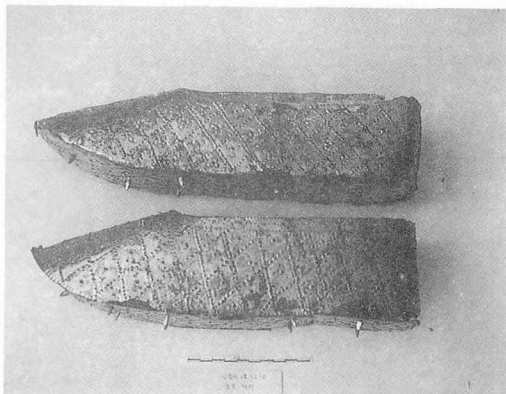
〈圖 5-4〉船山古墳出土飾履



〈圖 5-5〉笠店里出土冠帽



〈圖 5-6〉



〈圖 6〉笠店里出土飾履

② 太刀(圖 7,8)

近距離武器 또는 儀式 및 裝飾用으로 사용되었던 太刀는 韓半島의 各 古墳을 비롯한 遺蹟에서 出土되고 있으며 日本國內의 古墳等地에서도 상당량의 것이 出土되고 있다.

近來에 이르러 陝川郡 玉田古墳에서 出土된 太刀와 日本의 群馬縣綿貫觀音山古墳에서 出土된 太刀가 거의 同一 형태의 太刀임을 밝히고자 한다. 玉田古墳(M-3)에서 出土된 太刀는 古墳의 구조와 同時에 出土된 諸遺物들과 比較할때 5C 후반에 속하는 太刀이나 綿貫觀音山古墳出土의 頭椎太刀는 6C 후반으로 보고 있음을 볼때 韓半島南쪽인 陝川 玉田古墳의 것이 約1世紀앞선 것임을 알수 있고 이런 유형 of 太刀제작기법이 日本으로 전래된것이 아닌가 한다.

韓國에서 出土되는 太刀의 종류를 보면 高句麗, 百濟, 新羅, 伽倻地域에서 出土되는 곳에 따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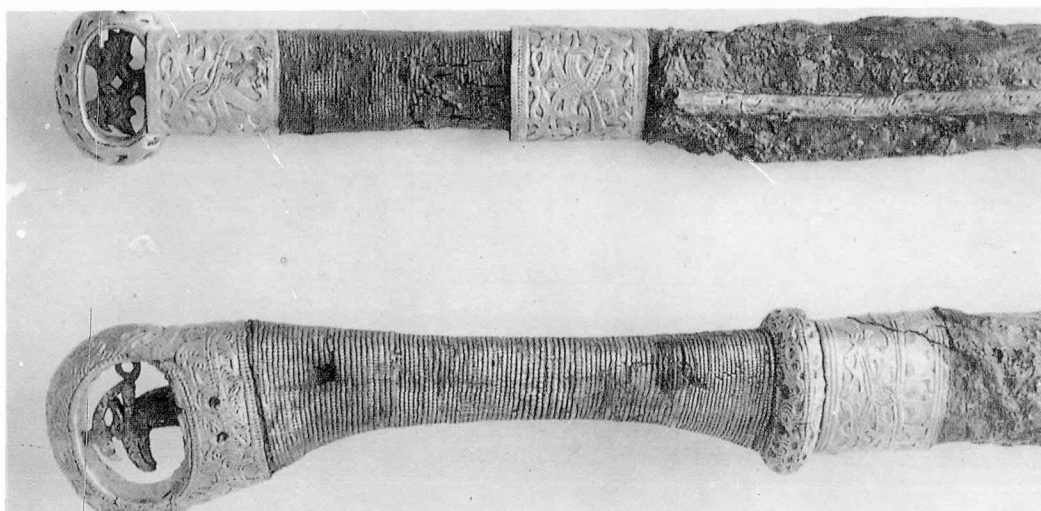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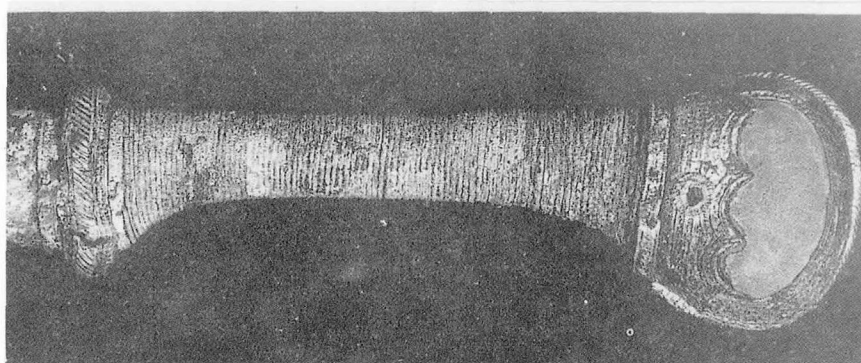


圖 7 陝川郡雙冊面城山里玉田古墳M3號出土太刀(下)(5세기後半)



〈圖 8〉群馬縣綿貫觀音山古墳出土頭椎太刀(6세기後半)

類型과 樣式이 各已 다르다.

高句麗의 環頭大刀에는 柄頭의 고리안에 아무장식도 없는 素環頭大刀(集安下活龍村8號墳)과 柄頭의 고리안에 세잎사귀 모양의 장식이 있는 三葉環頭大刀(高刀墓子村15號墳, 麻線溝1號墳 平壤兵器廠址)가 있다.

百濟의 環頭刀에는 素環頭大刀 三葉環頭大刀를 비롯하여 三環을 이룬 고리안에 三葉裝飾이 있는 三葉三環頭大刀(潘南面古墳)과 고리안에 龍頭의 형상을 만든 單龍環頭大刀(武寧王陵), 고리안에 봉황새의 형상을 가진 單鳳環頭大刀(新村里6號墳)을 들수있으며 伽倻에 있어서는 素環頭大刀를 비롯하여 三葉環頭大刀, 三環頭大刀, 單龍環頭大刀, 單鳳環頭大刀등이 있으나 이것 이외에 昌寧校洞11號墳, 梁山夫婦塚出土의 銀裝圓頭大刀와 고리안에 交龍의 頭首側面을 장식한 雙龍環頭大刀(昌寧校洞10號墳), 고리안에 金銅製鬼神像을 장식한 鬼文環頭大刀등 여러종류가 있다.

新羅의 環頭刀에는 역시 素環頭大刀를 비롯해 三葉環頭大刀, 三環頭大刀, 三葉三環頭大刀, 單龍環頭大刀, 雙龍環頭大刀, 單鳳環頭大刀등이 있는데 이중 三環頭大刀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고구려, 가야에서는 三葉環頭大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한다.⁶⁾

日本에서의 環頭의 分類形態를 보면 單龍鳳文環頭大刀 雙龍鳳文環頭大刀, 頭椎大刀 등으로 區分하며 單龍鳳文環頭大刀의 樣式은 中國, 韓半島의 百濟와 伽倻를 거쳐 日本에 渡來하였다고하며 그 시기도 6C경으로 보고 있다

또한 雙龍鳳文環頭大刀역시 第1段階를 시발로 하여 그 變遷과정이 第7段階로 變化발전하였으며 祖型도 韓半島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⁷⁾. 雙龍鳳文環頭大刀의 발전시기를 第1段階 6C前半, 第2段階 6C後半初, 第3段階 6C第Ⅲ 4半世紀의 前半, 第4段階 6C第Ⅲ 4半世紀의 後半, 第5段階 6C第Ⅳ 4半世紀의 後半, 第6段階 6C第Ⅳ 4半世紀의 後半, 第7段階 7C初로 細分하여 발전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며 頭椎大刀역시 여러說이 있으나 대략 5C中葉에서 6C初葉에 出現하였다고 보고 있는바 그것은 奈良縣布留遺蹟出土의 木製把頭등에 유사한 형태로 미뤄보아 5~6C경으로 추정하는것 같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銀裝圓頭大刀의 大陸系영향이 강하게 미쳐 頭椎大刀가 出現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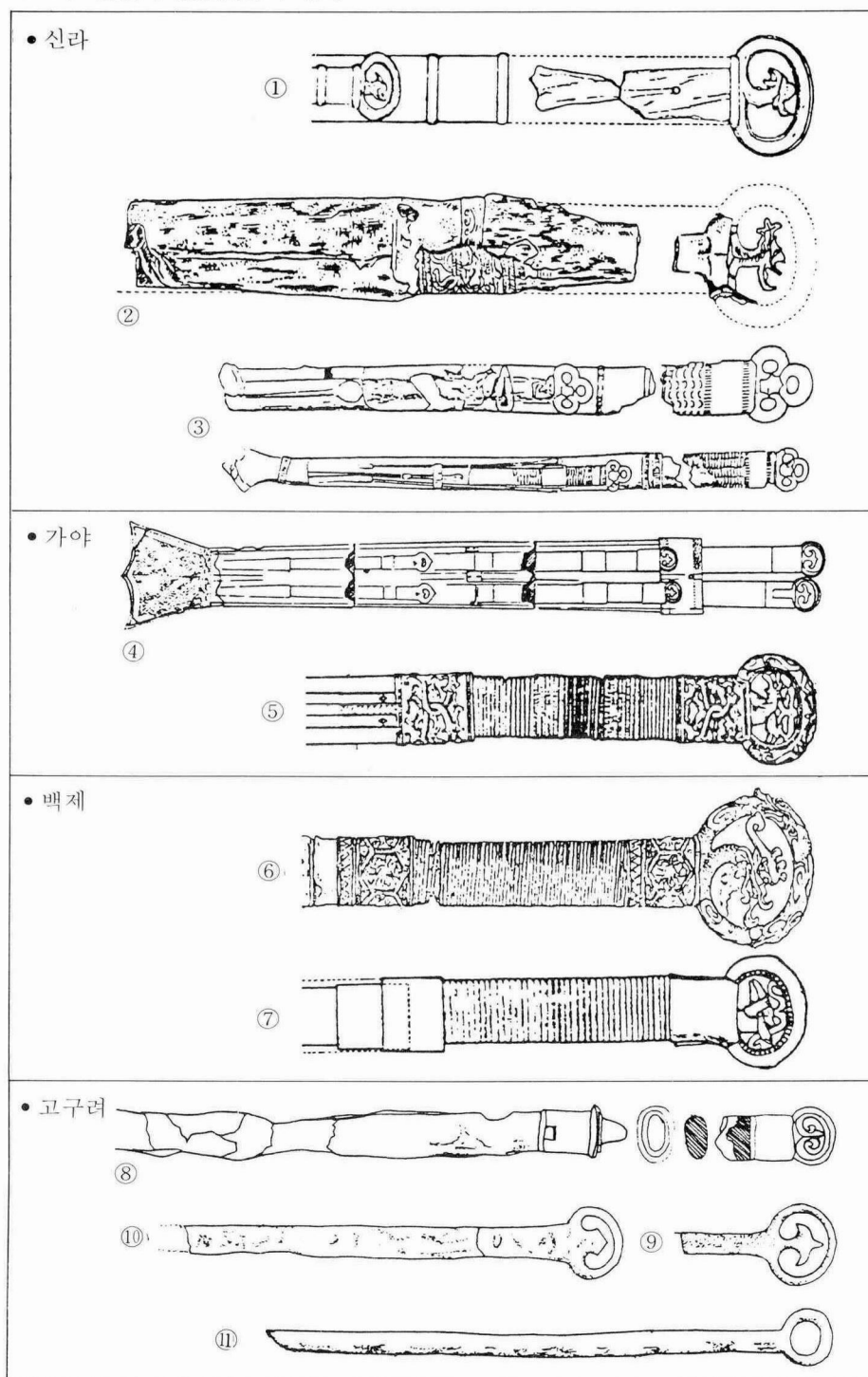
특히 金銀象嵌圓頭把頭의 系譜도 百濟 伽倻의 영향아래 船載品으로 渡日된것으로 보고 있고 日本에서는 伽倻의 칼이라는 奈良縣星塚1號墳出土의 大刀에서 象嵌手法이 보이고 있는 바 시기는 6C에 이르고 象嵌技法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그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韓半島에서는 全北南原月山里出土 素環頭大刀, 高靈池山洞出土 素環頭大刀에서 銀象嵌 金銀象嵌技法이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볼때 韓國은 三韓에서부터 伽倻時代까지 이미 象嵌 技法을 이용하고 있어 그 시기도 日本보다 4~5C앞서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며 이와같은 高度의 기법이 日本에 충분히 전래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6) 韓國의美 『古墳美術』三國時代の 武器와 馬具, p.193 中央日報發刊 1985.1.30.

7) 古墳時代 工藝『雙龍鳳文環頭大刀의 變化』, p.116 日本講談社刊, 1990.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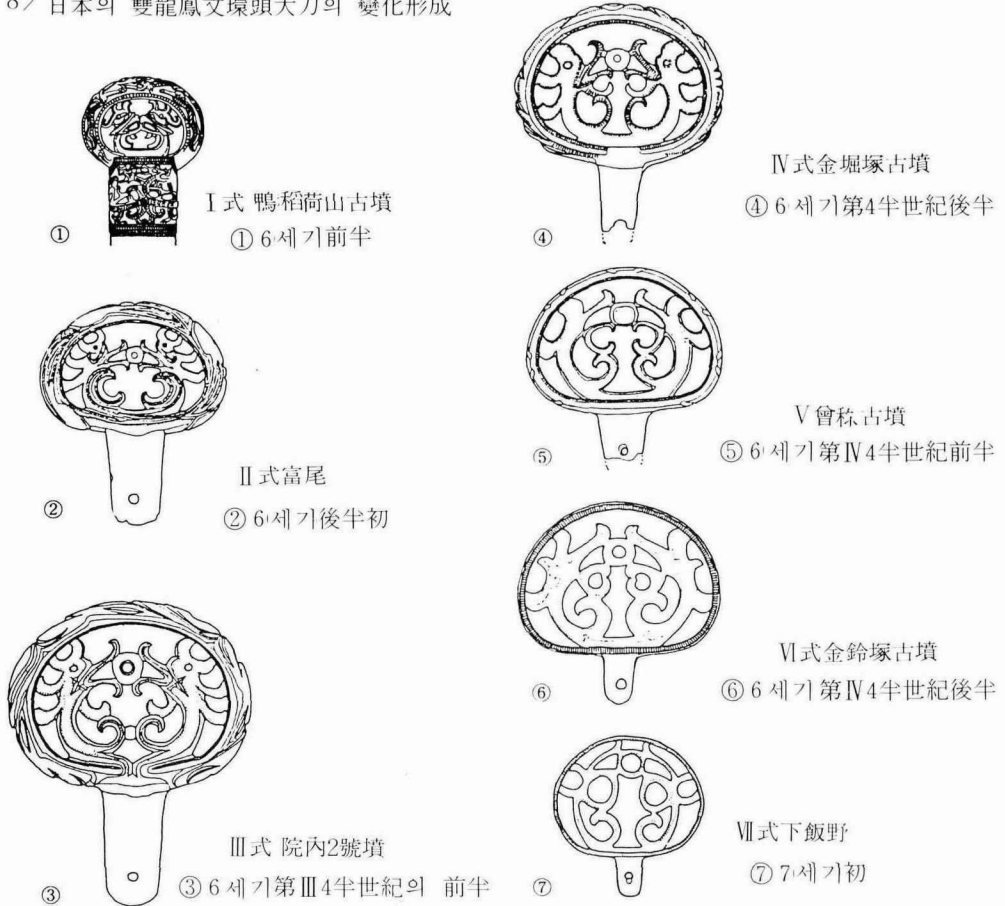
8) 前掲書117.

〈圖 7〉 韓國의 環頭大刀의 形式



① 天馬塚 ② 壺杆塚 ③ 金鈴塚 ④ 大邱內唐洞 ⑤ 昌寧校洞 ⑥ 武寧王陵 ⑦ 羅州新村里
⑧ 平壤 ⑨ 輯安麻線糠 ⑩ 高力壁子村 ⑪ 輯安

〈圖 8〉 日本의 雙龍鳳文環頭大刀의 變化形成



그 이외에 특별한 예의 大刀로서 日本에서는 이를 辟邪의 칼로 名稱을 붙이고 있는바 島根縣御崎山古墳出土의 獅嚙式環頭大刀(6C)奈良縣藤の木古墳出土의 金銅製鞍金具後輪(6C)등에서 보이는 鬼文이나 獅子文등은 伽倻의 鬼文環頭大刀, 百濟의 鬼面文瓦에서 연유되어 百濟및 伽倻를 경유해 日本에 輸入되었을 것으로 이들은 추정하고 있는 점도 注目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③ 투구와 갑옷(甲冑)(圖9)

국내의 古墳에서 近來에 이르러 방어용 무구인 갑주와 경갑등이 출토되고 있는바 이중 투구는 현재까지 出土정리된것으로는 三種類가 있다.

철모형투구, 장발형투구(仗鉢形冑), 철모형에 첩이 달린투구 등이며 대부분 가야지구의 고분에서 출토되고 있는것이 특이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등지의 고분에서는 파편류에 불과한것뿐 완형의 갑옷과 투구는 出土되지 않고 있고 다만 고구려의 고분벽화나 문헌 등에서 엿볼수 있을뿐이다.

가야의 투구중에서는 高靈池山洞32號墳, 昌寧出土의 복륜을 돌린투구, 釜山福泉洞11號墳의 투구 蓮山洞古墳의 투구 뿐이며 이들 대부분의 투구는 쇠판을 아래위에 잇대어 대면서 형태를 고정시킨 투구들인것이다.

갑옷에 있어서는 短甲과 札甲이 있는데 高靈池山洞32號墳에서 出土된 단갑 東萊出土 철제갑옷, 上柏里古墳出土의 철제갑옷, 福泉洞10號墳出土 철제갑옷, 慶南蓮山洞出土 단갑편등이 있으며 札甲의 갑옷도 高句麗 禹山下14號墳의 찰갑편, 金冠塚의 찰갑편, 皇南洞109號墳의 단형찰갑편, 大邱飛山洞34號墳의 金銅板으로된 찰갑편등이 있다.

國內의 各地古墳에서 이렇게 出土된 철제갑옷 및 투구와 거의 같거나 동일한것들이 日本國內各遺蹟地에서 出土된 例를 보면

- 大阪府大塚古墳出土甲冑(5세기)
- 千葉縣祇園大塚古墳出土투구(5세기)
- 大阪黑姫山古墳出土갑옷(5세기)
- 福岡縣月の岡古墳出土투구(5세기)
- 宮崎縣島內地下式横穴式古墳出土갑옷(5세기)
- 京都府二子山北墳, 南墳出土갑옷(5세기)
- 大阪府藤井寺市野中古墳出土갑옷(5세기中期)
- 靜岡縣安久路2號墳出土갑옷(5세기前半)
- 山口縣天神山第1號墳出土갑옷(5세기前半)
- 福岡縣塚堂古墳出土갑옷(5세기)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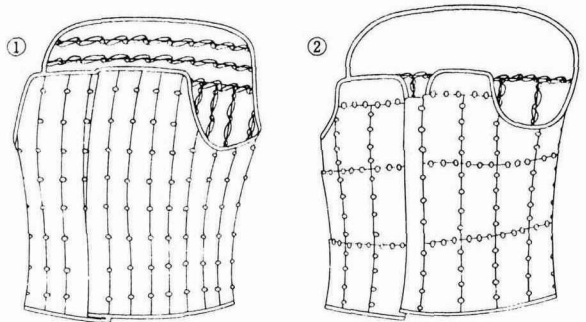
이들 遺蹟에서 出土된 단갑의 갑옷은 國內出土의 갑옷들과 技法 樣式 形態등이 거의 동일하며 그 시대역시 5C경에 대량으로 제작되어 이용하여 왔음을 알수 있다. 한편 國內갑옷의 시대는 일본보다 앞서는 4C에서 5C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때 韓半島의 갑옷형태나 양식 기법이 일본으로 전래되어 갔거나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渡來人들에 의해 제작사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韓國國內出土갑옷

(名稱은 日本에서 붙인 名稱으로 比較한 것임)



日本國內出土갑옷



慶州九政洞3號墳出土 豎矧板革綴 短甲(4C)

豎矧板革綴短甲(4C頃)

方形板革綴短甲(4C頃)

韓國內出土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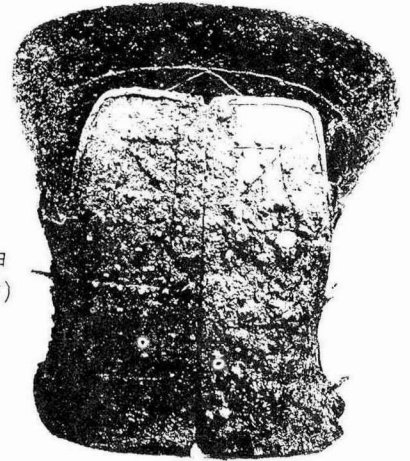
出土不明豎矧
板革綴短甲(5C)



三角板銚留短甲
慶南上柏里古墳(5C)



豎矧板銚留短甲
福泉洞10號墳(5C)



三角板銚留短甲
蓮山洞古墳(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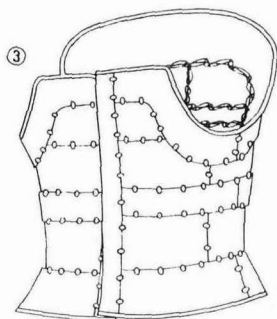


厥手文裝飾府豎矧
板銚留短甲
金海退來里古墳(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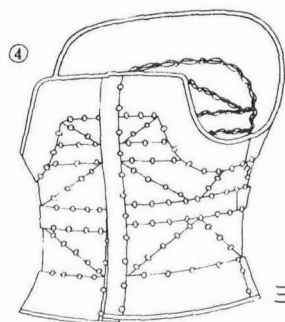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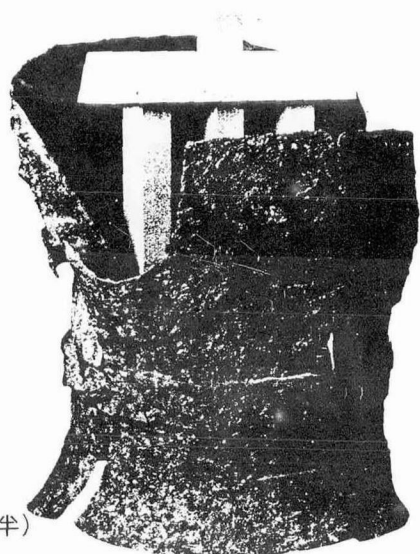


橫矧板銚留蓮甲
高靈池山洞(5C)

日本國內出土 갑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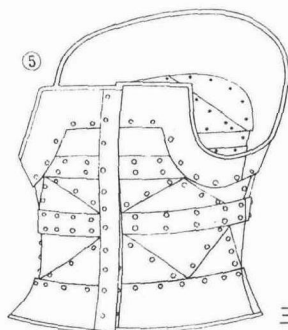


長方板革綴短甲(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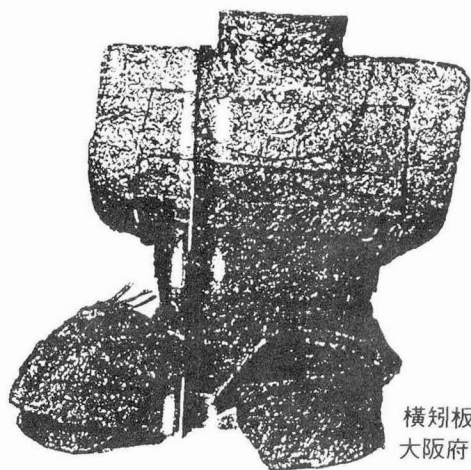
長方板革綴短甲
靜岡縣安久路2號墳(5C前半)

三角板革綴短甲(5C)



長方板革綴短甲
山口縣天神山第1號墳(5C前半)

三角板鉄留短甲(5C前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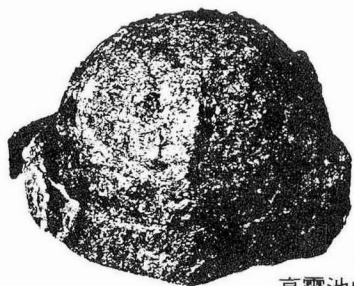


横矧板鉄留短甲
大阪府大塚古墳(5C)

三角板鉄留短甲
大阪府大塚古墳(5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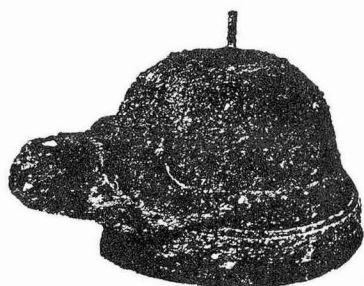
韓國內出土 투구



衝角付투구
高靈池山洞32號墳(5C)



鉢形투구
福泉洞11號墳(5C)



眉庇付투구
蓮山洞古墳(5C)

日本國內出土 투구



眉庇付 투구
千葉縣祇圓大塚山古墳(5C)

④안장(鞍輪)(圖10)

말에 올라앉기 위한 장구이며 안장에는 前輪와 後輪으로 구분되며 그 형태는 逆U字形을 이루고 금동복륜을 갖춘 금속관의 안교에 飛龍唐草文등을 透刻裝飾法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흔하게出土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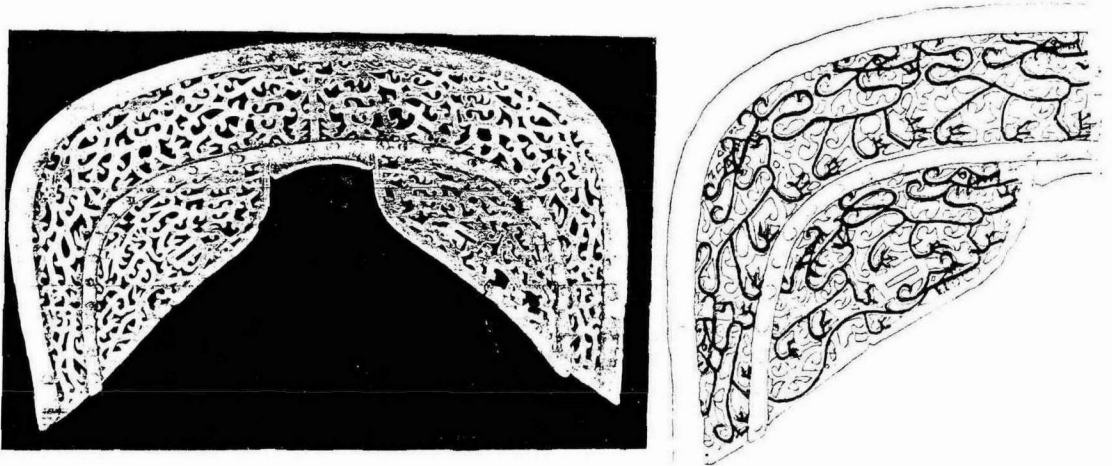
高句麗에서는 칠성산 제96호분, 우산하4호분, 만보정78호분 지경동고분, 우산轉山子152호분에서 안교가 출토된 예가 있다. 반면에 百濟에서는 그 유품이 온전하게 알려진것이 없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가야에서는 大邱 內唐洞52號墳 高靈池山洞出土 안고 등이 있고 特히 新羅의 유품중에서는 鐵製 靑銅製, 金銅製로된 안륜이 출토되고 있는데 路西里138號墳에서는 靑銅製안고편이 출토되고 호우 종에서는 鳳凰唐草文을 장식한 안륜이 出土되었으며, 飾履塚에서는 鳳龍唐草文을 장식한 것이, 金冠塚, 天馬塚, 皇南大塚등에서는 당초문과 용문을 장식한 안륜이 출토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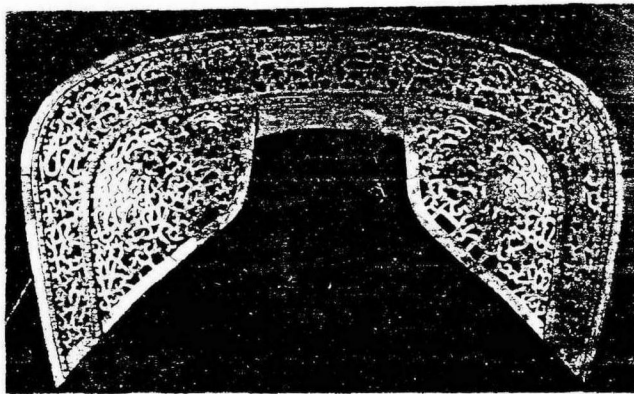
이 중 가야지역인 高靈池山洞古墳에서 出土된 飛龍唐草文을 장식한 안고와 유사한것이 日本大 阪府譽田御廟山古墳(現應神陵)陪塚인 丸山古墳出土鞍輪(5C)과 거의 동일하다.

안륜에 투각장식한 문양과 기법도 池山洞古墳出土의 안륜과 같다.

일본에서는 기병이 존재하였었다는 시기를 5C경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고분에서 출토 되는 유물과 벽화등에서 나타나는것을 보면 한반도에서는 4C中엽에서 부터 5C에 걸쳐 안악3號墳, 덕흥리 고분, 집안삼실총, 쌍용총등에서 이미 중장비를 갖춘 기병이 나타나고 있는것으로 볼 때 日本보다 훨씬 앞서 기병이 존재하였음을 알수 있고 남쪽의 伽倻지역 역시 이 시기에 기병이 있었다고 보며 이와같은 기병에 이용되었던 마구류가 日本에 전해지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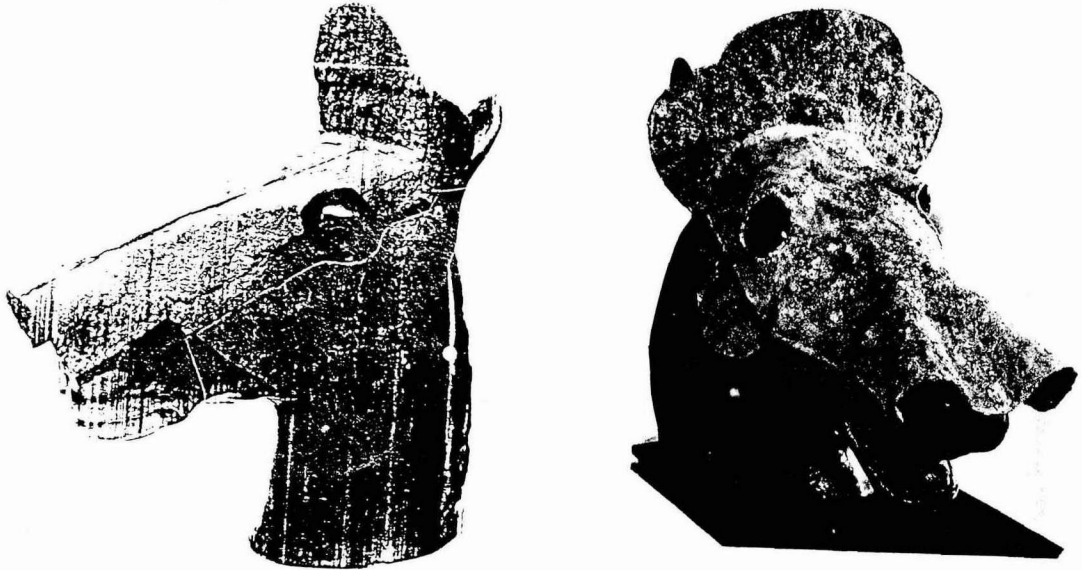
〈圖 10-1〉高靈池山洞古墳出土鞍輪 透彫飛龍唐草文裝飾



〈圖 10-2〉丸山古墳出土鞍輪前輪飛龍唐草文透彫裝飾(5세기)

⑤ 馬冑(圖 11)

기병전투에 있어 말의 안면에 씌웠던 馬冑는 釜山福泉洞10號墳에서 出土된 鐵製馬冑(5C)와 日本 和歌山縣大谷古墳出土馬冑는 同一人이 제작한것과 같이 동일하며 또한 이와같은 馬冑의 착용을 보이는 例는 高구려벽화고분에서 보이는 馬冑와도 동일하다. 이로부터 馬冑의 전래도 北方기 馬족의 文化전래에 따라 한반도, 특히 가야에서 전래된 것이 실증되는 유물이라 본다.



〈圖 11〉 釜山福泉洞10號墳出土馬冑(5세기)長51.6m 和歌山縣大谷古墳出土馬冑(5세기)長50.5m

⑥ 須惠器(硬質土器)(圖 12)

須惠器라는 日本의 硬質土器生産과 그 源流를 日本學者들은 慶南, 全南地域으로 보고 있으며 特히 西日本 各地에서 窯業生産이 시작된것은 5C前半頃 慶南의 西半部인 加羅지역에서 이주한 陶工集團에 의해⁹⁾

福岡縣小隈窯, 香川縣三郎池西窯, 宮山窯, 和歌山縣鳴瀨遺蹟周邊의 紀の川下流에서 生産製作地였다고 하며, 또한 伽倻系土器가 광범하게 유통된 곳을 보면 福岡縣有田遺蹟, 池の上, 古寺墳墓群, 大阪府野中古墳, 布留遺蹟, 南山4號墳, 奈良縣坪井大福遺蹟, 和歌山縣南見遺蹟, 六十谷遺蹟, 岐阜縣遊塚古墳出土의 土器가 西日本을 中心하여 分布하고 있다고 한다.

- 池の上出土의 土器는 伽倻地域에서도 泗川 固城地域
- 鳴瀨遺蹟의 土器器臺형식은 晋州 晋陽地域
- 野中古墳出土土器의 把手付高杯형식은 金海 洛東江下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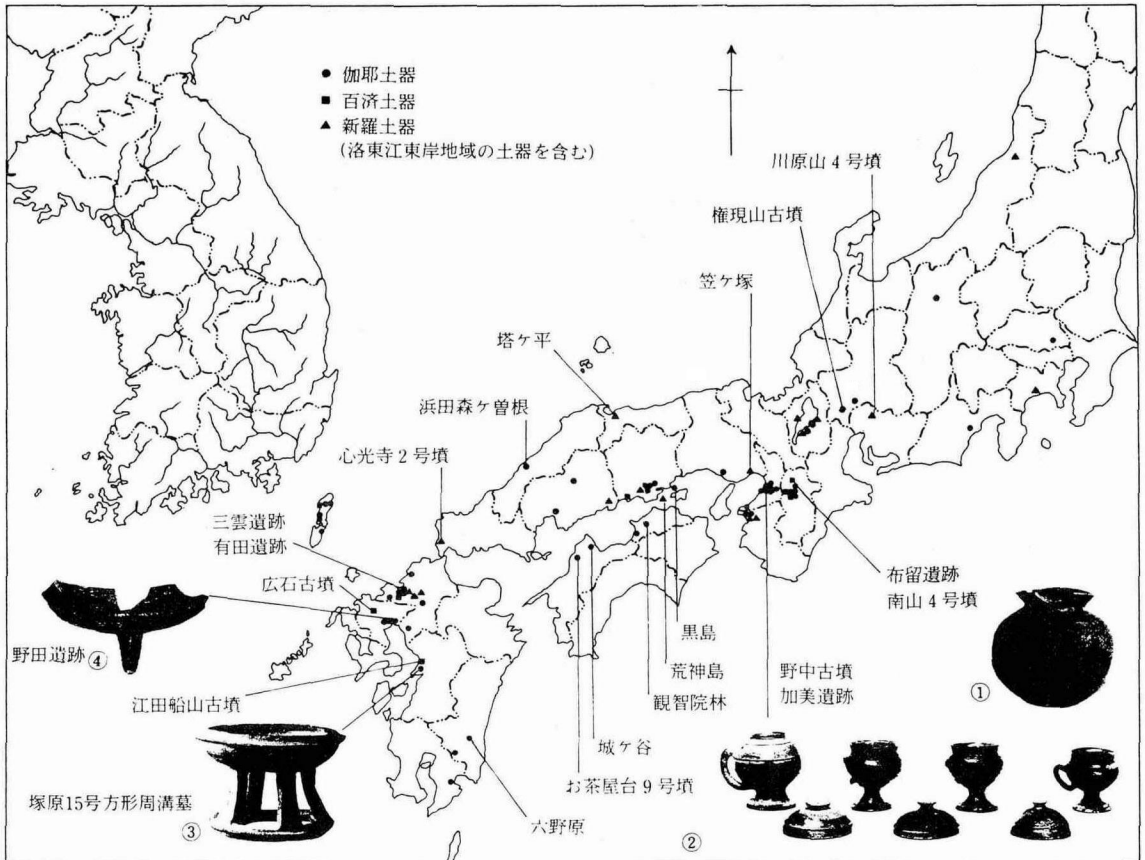
9) 前掲書176.

- 布留遺蹟의 火焰形透孔高杯형식은 咸安에서 義昌 金海地域
- 八尾南入江遺蹟出土의 壺形土器는 高靈 陝川地域에서의 供給地로 보고 있다.

일본의 야요이시대(彌生時代)이래 계속하여 無文土器 瓦質土器 陶質土器의 傳來는 韓半島로 부터 사람의 왕래에 의해 전해졌 다고 하며 또한 伽倻土器의 流入과정도 交換 交易 人間の移動등에 의해 이루어졌고 特히 鍛冶集團과 더불어 陶工들이 西日本의 各地로 渡來하였다고 한다.

5C 中葉에 이르러 陶邑古窯群의 成立은 생산기술의 제2次적 傳來로 慶尙南道 全羅南道에 걸친 지역에서 陶工들이 渡來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점이 主目되고 重要한 사실이라 본다.

〈圖 12〉 日本國內韓國系 土器分布圖



IV. 結 言

일본문화속에 韓國古代文化가 영향을 미친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유래가 있으나 古代韓國文化傳來에 따른 신빙성있는 論著와 著書가 近來에 발간된 바가 있다.

이와같이 著書와 論著에 의하면 日本國內에는 古代韓國과 관계되는 寺院, 神社, 地名, 遺蹟地, 文化流入經路, 姓氏名等이 무수히 나타나고 있고 또한 韓半島의 文化와 人間들의 왕래가 미친 시기에 대하여도 언급하고 있는바 그 시기는 대략 BC 2C에서 부터 AD 6C경 까지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크게 준 때라고 보며 특히 AD5~6C경에는 佛敎文化의 전래와 더불어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古墳, 寺址, 窯址등 遺蹟址에서 出土되는 冠, 冠飾, 帶金具, 裝飾具와 馬具類에 속하는 鞍輪, 鐙子, 杏葉, 雲珠, 자갈등을 여러 論文이나 發掘報告書에서 類型別로 分類하여 韓半島의 古代文化의 영향이 있었다고 究明하고 있으며 武具類에 있어서도 甲冑 大刀等이 韓半島에서 出土되는 遺物과 비교하여 樣式 技法등이 동일형임을 出土別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南部地域인 伽倻文化系統의 영향이 컸음을 그들 自身이 立證하고 있다.

日本の 須惠器란 硬質土器의 영향도 日本에서는 西日本을 中心하여 本土에 까지 점차 파급된것은 韓國陶工들에 의해 4C말 시작하여 5C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전래 생산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경질토기의 系統도 百濟系, 新羅系, 伽倻系로 구분되고 이들 계통이 광범위하게 미쳤음을 알 수 있는것이다.

西紀6世紀以後 高麗, 朝鮮王朝때까지도 빈번한 교섭이 있었겠으니 특히 日本의 天皇系에도 이미 日本書紀에서 齋明天皇이 百濟系桓武天皇의 母后인 新笠이 百濟系의 和氏임을 밝혀 百濟系 血統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皇族遺物만 保管하고 있는 御寶庫인 正倉院內的 遺物에서 보이듯 紅牙, 紺牙撥鏤基子인 象牙基石도, 東大寺獻物帳에 百濟義慈王이 선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新羅의 墨이 15個보관되고 있는데 이 역시 墨에 刻銘된 「新羅揚家上墨」이란 銘文에 따라 이미 우수한 筆墨이 日本에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유물이외에도 佐波理라고 하는 靑銅의 匙, 鏡盤 등의 食器類가 상당량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때 AD5C~6C¹⁰⁾ 이후에도 오랜 동안 韓國과 交隣이 있었으며 고유한 文化가 日本에 전해졌음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韓半島의 文化영향을 부정하였던 경향에서 近者에 이르러서는 점차 渡來人 渡來文化

10) 正倉院寶物圖錄 圖版解說 24, 53, 110, 111. 奈良國立博物館刊 1981. 10. 31.

라는 명칭아래 日本古代文化속에 韓國의 古代文化가 流入 變性하여 地대한 影響을 주었음은 인정하고 있으며 또 이를 근거로 하여 韓半島의 遺蹟에서 出土된 여러 遺物들과 形式, 樣式, 技法등을 比較연구해 긍정적으로 學術論文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본다.

筆者의 원고에서 遺蹟地, 地名, 人名을 비롯해 出土遺物에 있어 銅釋, 銅鏡, 冠, 大刀, 甲冑, 鞍輪, 馬具, 硬質土器등 일부에 한하여 간략하게 전개한 것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며 이와 같은 유물 유적지 이외의 여러분야에 속한 것은 장차 現地답사와 기록, 實物들을 대할 기회가 있을 때 더욱 확고한 論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拙稿를 마치고자 한다.

